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2020년 하반기 컨테이너선 용선료 급등
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DHL, 아시아·태평양지역 인프라 확장에 약 7억 5천만 유로 투자
2. 아마존, 올 연휴 기간 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
3. 로테르담항,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100건 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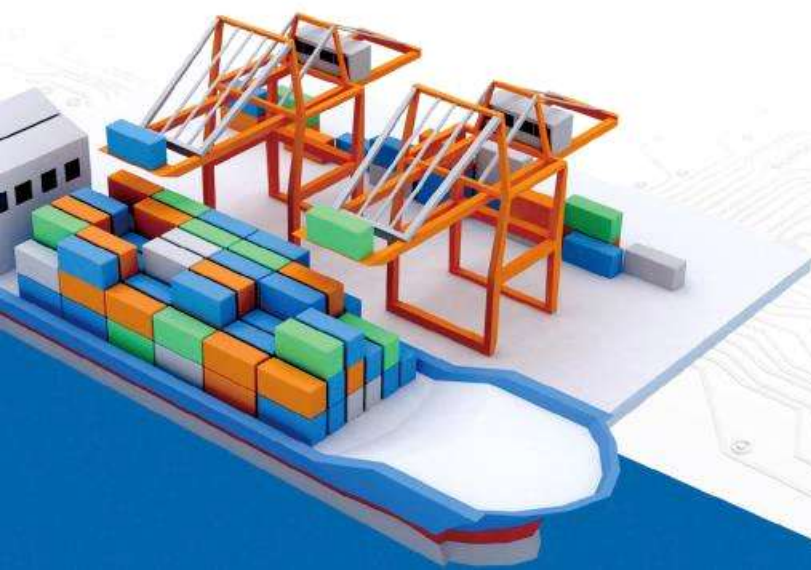
공지사항

- 「2020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회」 개최
일시: 2020.12.8.(화) 14:00~16:00
진행방식: 줌(Zoom)을 통한 실시간 영상회의
* Zoom 우수사례 발표회 링크:
<https://us02web.zoomus/j/6543218255?pwd=NUM6NMJKZFVjMT1eFBPbXVpdThNb209>
※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

명사 스피치

“국적선사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등 2018년에 수립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수출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적선사와도 적극 협력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화물을 차질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

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
(2020. 11. 27. /물류신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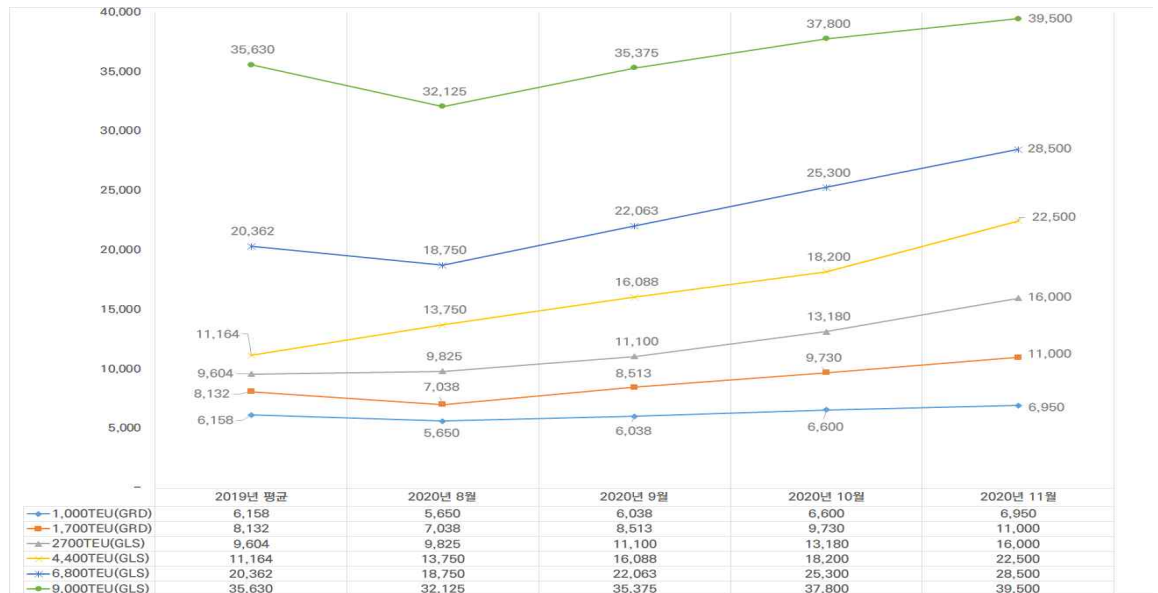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2020년 하반기 컨테이너선 용선료 급등

최근 6개월간 컨테이너선 정기용선 용선료 추이

(단위 : 달러/일)



자료 : Clarkson Research, Shipping Intelligence Weekly, Clarkson Research Studies, Vol.25 No.10, p.7.

주 : GRD는 선박 내 하역장비 보유, GLS는 선박 내 하역장비 미보유.

- 2020년 하반기 컨테이너선 정기용선(최근 6개월) 용선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
 - 1,000TEU(GRD)의 용선료는 2020년 11월 6,950(달러/일)로 지난 8월 대비 23%, 2019년 평균 대비 12.9% 상승함
 - 1,700TEU(GRD)의 용선료는 2020년 11월 11,000(달러/일)로 지난 8월 대비 56.3%, 2019년 평균 대비 35.3% 상승함
 - 2,700TEU(GLS)의 용선료는 2020년 11월 16,000(달러/일)로 지난 8월 대비 62.8%, 2019년 평균 대비 66.6%로 크게 상승함
 - 4,400TEU(GLS)의 용선료는 2020년 11월 22,500(달러/일)로 지난 8월 대비 63.6%, 2019년 평균 대비 101.5%로 급등함
 - 6,800TEU(GLS)의 용선료는 2020년 11월 28,500(달러/일)로 지난 8월 대비 52%, 2019년 평균 대비 40% 상승함
 - 9,000TEU(GLS)의 용선료는 2020년 11월 39,500(달러/일)로 지난 8월 대비 23%, 2019년 평균 대비 10.9% 상승함

■ 참고자료 : Clarkson Research, Shipping Intelligence Weekly, Clarkson Research Studies, Vol.25 No.10

최나영환 전문연구원

051-797-4770, chnayoung@kmi.re.kr
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DHL, 아시아·태평양지역 인프라 확장에 약 7억 5천만 유로 투자

- 글로벌 물류 운송기업인 DHL 익스프레스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확장에 약 7억 5천만 유로(약 1조원)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
 - DHL 익스프레스는 한국, 호주, 일본, 홍콩 등 주요국에 아·태지역 시장의 인프라 건설과 확장에 약 6억 9000만 유로(약 9,050억원), 전용 화물기의 직항과 신규 노선 취항, 노선 확대 등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약 6000만 유로(약 788억원)를 투자할 예정임
 - 이로써 DHL 익스프레스가 아·태지역 총 투자액은 약 7억5000만 유로(약 1조원)에 달함
 - DHL 익스프레스는 현재 아·태지역에 23대의 전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약 1040편의 항공편을 운항 중이고 내년 2월 아·태지역 운항 항공기로 에어버스 A330-300P2F를 추가 투입하고, 같은 해 3월 보잉 737-800F를 추가 투입할 계획임
- DHL 익스프레스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는 아·태지역의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한 것에 기인함
 - DHL 익스프레스는 2020년 초부터 중국을 제외한 아·태지역의 전자상거래 물량이 약 50% 급증하였으며 연말 성수기 동안 아태지역 배송물량은 지난해보다 30~40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
 - DHL 익스프레스는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초국경 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라 아·태지역이 국제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라고 판단하여 이번 투자를 결정함
 - 금번 투자를 통해 인프라와 항공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장해 물동량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특송 서비스 수요를 처리해 나갈 예정임
- DHL 익스프레스는 아·태지역 중 한국에 1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DHL 익스프레스의 아·태지역 투자금액 중 최대 규모임
 - 한국에서는 인천 게이트웨이(화물터미널)의 시설 확장을 위해 이미 약 1억 3,100만 유로(약 1,718억원)가 투자되어 지난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감
 - 확장된 DHL 인천 게이트웨이는 기존 면적 대비 3배 가까이 큰 총 5만870㎡로, 완공되면 DHL 익스프레스의 아·태지역 내 최대 규모의 게이트웨이가 될 예정임
 - 금번 투자 확대로 DHL 익스프레스를 통한 글로벌 특송화물 처리량은 약 160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DHL 코리아는 현재 한국은 직구와 역직구가 활발하게 성장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, 이러한 성장세와 대규모 투자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, 글로벌 무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밝힘

■ 참고자료 : www.itln.in(검색일: 2020.11.26)

류희영 연구원

051-797-4634, hyryu@kmi.re.kr

아마존, 올 연휴 기간 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

- 아마존은 올해 연말 쇼핑 시즌 매출액이 역사상 최대였다고 밝힘
 -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했기 때문이며, 아마존은 올 연말 온라인 매출에 있어 가장 큰 승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
 - 아마존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지인들을 위한 연말 쇼핑을 평소보다 빨리 한 것으로 나타남
 - 아마존은 올해가 온라인 쇼핑 판매 역사상 최대의 한해였다고 밝혔으나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¹⁾의 실제 매출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음
- 연휴 기간 높은 매출액을 달성한 아마존의 인기 구매 품목에는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저서, 헤어관련 제품,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
- 아마존은 개별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홍보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개별 업체들도 아마존 플랫폼에서 기록적인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
 -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별 기업들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 기간까지 세계적으로 48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, 이는 전년대비 60% 이상 증가한 수준임
 - 이번 연휴를 통해 71,000개의 중소기업이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
- 최근 발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% 증가한 90억 달러를 달성함
- 이렇듯 아마존은 온라인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킬 때 오프라인 매장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52%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
- 아마존은 연휴 기간을 대비해 창고 직원을 대폭 증원함과 동시에 창고 공간까지 확장함으로써 급증하는 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였음
 - 이런 투자 덕분에 아마존은 올 연휴기간 지출된 달러당 42센트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, 이는 작년 36센트에서 증가한 수치임

■ 참고자료: www.cnn.com(검색일: 2020.12.2.)

신수용 부연구위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1) 사이버먼데이(Cyber Monday):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의 첫 월요일을 칭하는 날로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때 판매하지 못한 물건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날임

로테르담항,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100건 추진

- 로테르담항만공사와 PortXL은 코로나19 대유행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2021년 100건의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임
 - 로테르담항만공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시장 이해 관계자들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'코비드 딥(COVID dip)'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
 - 따라서 로테르담항만공사는 항만기업들을 혁신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새로운 기술, 자동화 솔루션,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PortXL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함
- PortXL은 로테르담항의 스마트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ATCH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,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모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임
 - MATCH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PortXL의 혁신 프로젝트로, 이미 4,000개 이상의 혁신 기업으로 구성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
 - MATCH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은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, 기존 항만기업들은 혁신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- PortXL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로테르담항만공사와 함께 2021년 100건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며, 기업들로부터 구체적인 시장 요구사항을 받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관련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성원들을 연결할 것이라고 함

■ 참고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(검색일: 2020.11.30.)

강무홍 전문연구원

051-797-4684, mkang@kmi.re.kr





공지사항

「2020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회」

- 「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」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'2020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회'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
본 발표회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으로 지난 해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해외진출 정보를 공유하고, 사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과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하여 해외 진출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됩니다.

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물류 기업,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발표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**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**됩니다.

- 상세한 주제 및 내용은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일시 : 2020. 12. 8(화) 14:00~16:00
 - 진행 방식 : 줌(ZOOM)을 통한 **실시간 온라인 진행**
 - 회의 링크 및 ID/PW
 - 회의 링크: <https://us02web.zoom.us/j/6543218255?pwd=NUV6NWlKZWpWMT1eRFBhVjpdTHNkZ09>
 - ID: **654 321 8255**
 - PW: **1208**
- 영상회의(Zoom) 참가 시 유의사항
- 참가 전에 프로필 정보를 [기관명 - 이름 및 직함]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회의 링크를 클릭한 후 위에 제시된 ID/PW 입력 후 참가하시면 됩니다.
 - 별도로 Zoom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참석 가능



<<프로그램>>

시간	주요 내용
14:00-14:10	〈개회인사〉
14:10-14:20	(발표 1)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- 최나영환 전문연구원, KMI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14:20-14:40	(발표 2) 말레이시아 콜드체인(Cold-Chain) 구축 사례 - 한건호 과장, (주)SPC-GFS
14:40-15:00	(발표 3) RMLA 전문 물류 기업 베트남 진출 물류 타당성 조사 사례 - 김승현 이사, (주)포맨해운항공
15:00-15:20	(발표 4) 중국 보세구 디스플레이 설비 창고 구축 사례 - 김민성 이사, (주)로지스틱패밀리
15:20-15:30	휴식
15:30-15:55	종합 토론
15:55-16:00	〈종합 및 폐회〉

□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(051-797-4770, 051-797-4913)로 문의 바람